

윤리 정답

1	②	2	②	3	⑤	4	②	5	③
6	①	7	⑤	8	①	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④	17	④	18	①	19	④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지문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위하며 가치있는 삶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2. [출제의도] 공자의 인(仁), 예(禮)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스승’은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주장한 공자이다. 공자의 ‘인’은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며, ‘예’는 인을 바탕으로 한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충(忠)과 서(恕)를 제시하였다. 서(恕)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이다. ③은 목자, ④는 순자, ⑤는 맹자의 주장이다.

3. [출제의도] 근대 한국 윤리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가)는 동학, (나)는 개화사상, (다)는 위정척사이다. 동학은 민족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기존의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만민평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온건 개화론자들은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에서 유교적 가치를 계승하는 가운데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위정척사는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4. [출제의도] 다양한 이상 사회 이해하기

(가)는 이상 사회의 유형, (나)는 이상 사회의 조건이다. (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플라톤의 이상 국가이다. 그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리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①은 마르크스, ③은 노자, ④는 바쿠닌, ⑤는 루소의 입장이다.

5.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간이 감각적 인식과 편견에 사로잡혀 우주만물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인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자연의 덕을 망각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를 부정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삶을 살 때, 사회 혼란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는 유가, ④는 불교의 입장이다.

6. [출제의도] 쾌락주의 윤리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 병은 밀이다. 이들은 모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본 쾌락주의자들이다. 정신적 쾌락을 강조한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평정심인 아타락시아(ataraxia)를 이상적 경지로 삼았다. 쾌락 추구에 있어 벤담은 양, 밀은 질을 강조하였다. ②는 베이컨, ③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7. [출제의도] 불교의 중도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이것’은 중도(中道)이다.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는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연기설의 관점에서 볼 때 독자적, 불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의 집성체는 애욕과 무명에 따른 집착을 가리킨다.

8. [출제의도] 목자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은 목자의 주장이다. 그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산적인 노동을 중시하였으며, 사치를 삼가고 소비를 줄일 것을 역설하였다. ③은 순자, ④는 유가, ⑤는 장자의 주장이다.

9. [출제의도] 고대 그리스 사상가 이해하기

그림의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곧 덕’이라는 입장에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앎을 가지면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성애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를 참된 세계로 여겼으며, 지혜와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보았다. 중용의 생활 자세를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에 주의주의적 측면을 가미함으로써 도덕적 실천 의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10.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양명학자인 왕수인, 을은 성리학자인 주희이다. 왕수인은 모든 이치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理)를 마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행합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주희는 격물치지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아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론적 탐구 과정을 중시하였다. 그는 먼저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만 올바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11. [출제의도] 실존주의와 생철학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가)는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 (나)는 생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주장이다. 실존주의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시하고 개인의 주체적 삶을 강조하였다. 생철학은 생명이 근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힘을 믿고 충실한 삶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이 두 사상은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에 반대하고 인간의 현실적인 삶 자체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2.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가)는 이황(李滉), (나)는 이이(李珣)이다. 이황은 이(理)의 능동성을 인정하면서 이귀기천(理貴氣賤)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와 기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사단은 이발(理發), 칠정은 기발(氣發)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이와 기가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보편적인 것으로 기를 특수한 것으로 파악하여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理通氣局].”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13. [출제의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개인주의, 을은 집단주의 입장이다. 개인주의는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사회 현상을 개인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한다는 관점으로 집단의 목표와 질서를 강조한다. ㄱ, ㄴ은 개인주의 이다.

14.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그는 우주가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필연적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여겼다. 또한 이러한 질서를 이성적으로 관조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는 아우구스티누스, ③은 실용주의자 듀이, ④는 키르케고르의 주장이다.

15.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예를 통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수양을 통한 선한 본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16. [출제의도] 관념론과 유물론 이해하기

그림의 을은 관념론의 입장이다. 관념론은 인간의 정신적 생활 및 의식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인간의 역사를 문화, 종교, 철학과 같은 추상적 원리의 전개에 의해 설명한다. 가, 다은 유물론의 입장이다.

17. [출제의도] 한비자와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한비자, 을은 맹자이다. 한비자는 성악설의 입장에서 백성을 오직 상과 벌로써만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엄격한 형법에 의지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정치를 배척하고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민본주의의 입장에서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①은 노자, ②는 순자의 주장이다.

18. [출제의도] 정약용의 인성론 이해하기

지문은 정약용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현실의 구체적 사물에 대한 성향, 즉 기호(嗜好)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의 심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결단을 촉구하는 자유의지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덕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행위 속에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헤겔과 홉스의 사상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헤겔, 을은 홉스이다. 정신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 헤겔은 윤리의 개인적 측면보다 사회적·역사적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공동체의 윤리를 인륜(人倫)이라고 불렀다. 그는 개인이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 의미를 가지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혼란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기적 개인이 계약을 맺어 사회 규범을 만들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를 세우게 된다고 보았다. ③은 칸트의 입장이다.

20.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윤리설 이해하기

지문의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통해 쾌감을 느낄 때 그것이 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흄의 윤리설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였으며,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만이 가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효용성보다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